

2026년 2월호(제 254호)

소중한사람들

당연히

학교에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교회에는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놀이터에는
깔깔대고 웃는 어린이들이

시장에는
반찬 파는 상인들과
반찬 사는 아낙네들이

언제까지나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모두 다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당연히가 사라진
낯설고 두려운 이 땅에도
모진 겨울이 가면
따뜻한 봄이 오려나?
차갑게 언 땅을 뚫고
과연 봄이 올 수 있으려나.

그래!
봄은 사람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신이 보내는 것이니
당연히 오리라!
그 날에 사라진 것들도
제자리로 돌아오리라.

시/ 유정옥

발행인 이성일, 유정옥

[소중한사람들] 주소 04502 서울 중구 중림로 8길 12 · 전화 02-365-9106 · 팩스 02-365-9104 · www.ppp.or.kr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 주소 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전화 031-582-0191 · www.pphealing.com

나의 영광을 위함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어린 시절, 유정옥 사모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누군가 "똑똑" 문을 두드렸다.

"목사님, 계시나요?"

우리 교회의 오 집사님이 나의 남편인 목사님을 찾아오신 것이었다. 오 집사님은 딸만 넷인 집안의 막내인데, 나 또한 딸만 있는 집의 막내라 평소 마음이 잘 맞아 친구처럼 지내던 분이였다.

"어찌죠? 지금 목사님이 출타 중이신데..."

"그럼 사모님이 대신 오셔서 저희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 집사님은 내 손을 잡고 급히 자기 집으로 향했다. 어찌나 급했는지 나는 집에서 입던 차림 그대로 끌려가듯 나섰다.

"어머니가 오셨나 봐요?"

"네, 몸이 안 좋으셔서 병 낫기를 기도해 달라고 하시네요."

집에 도착하니 집사님의 언니들도 와있었고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오 집사님의 언니들이 누워 계신 그녀들의 어머니를 둘러싸고 앉아 있다가, 내가 들어서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첫 만남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올걸...' 후회가 밀려왔다.

집사님은 목사님 대신 사모님이 오시게 된 상황을 언니들에게 설명했다. 큰언니로 보이는 분이 내게 정중히 기도를 요청했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니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족들에게 짧게 인사를 건네고 그 어머니 옆에 앉았다.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안색이 어둡고 병색이 보였다. 그런데 입을 열어 기도를 시작하려는 찰나,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강하게 말씀하셨다.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말라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악령의 장난인가, 아니면 정말 성령님의 음성인가?' 당황하여 멈칫하는 사이, 곁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네 교회 사모님은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기도도 못 하니?"

순간 자존심이 상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유창한 방언과 미사여구를 섞어 보란 듯이 기도하고 싶었다. 오늘날 보고 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건 상관없지만, 우리교회 교인이며 내 친구 같은 오 집사님의 체면은 뭐가 되겠나 싶었다. '내 체면이 아니라 오 집사님을 위해서라도 유창하게 기도해야겠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를 막는 듯 했다.

결국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눈만 감고 앉아 있었다. 작은 수군거림은 어느덧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변했고, 나를 변호하던 오 집사님의 목소리는 반대로 점점 기어들어 갔다. 너무 창피해서 심장에서 땀이 나는 것

같았다. 부끄러움이 극에 달했을 때, 내면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이 기도는 나의 영광을 위함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내 영광을 위함이었다. '나 이렇게 기도 잘한다, 영적인 사람이다, 오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는 대단한 곳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거기엔 하나님의 영광도, 아파 누워있는 환자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도 없었다.

나는 기도를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조롱을 받더라도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렇게 다짐하고 침묵을 지킨 지 몇 분이나 지났을까?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 내어 울기 시작하셨다. 통곡 소리를 듣자마자 나는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얼굴은 화끈거렸고 그저 빨리 숨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다음 날 주일 아침, 어제 봤던 오 집사님의 온 가족이 예배당에 앉아 있었다. 긴 의자 두 줄이 그 가족들로 가득 찼다. 예배가 끝난 후, 놀라운 사연을 듣게 되었다.

오 집사님의 어머니는 오랜 세월 하나님을 섬겨왔지만, 특별한 영적 체험 없이 평탄한 신앙생활을 해오셨다고 한다. 그러다 문득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의심이 생겼고, 이런 기도를 하셨다.

"하나님, 당신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섬겨온 당신이 진짜 살아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아픈 척 누워서 딸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들께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만약 그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겠습니다."

기도 요청을 거절할 목사님이 어디 있겠는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다. 어머니는 폐병으로 누워 첫째 딸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불러 기도를 요청했고 목사님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둘째, 셋째 딸의 집을 차례로 돌며 똑같이 부탁하셨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목사님께도 '기도하지 말라'는 동일한 감동을 주셨을 것이다. 하지만 그 영적인 감동이 너무나 생소하고 이상했기에, 목사님들은 평소처럼 최선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셨다.

거듭되는 최선을 다한 기도에도 실망한 어머니는 정말로 병이 나고 말았다. '아, 하나님은 없구나'라는 절망이 실제 몸의 병이 되어 깊어진 것이다. 막내딸인 오 집사님 집에 왔을 때는 안색이 몰라보게 나빠진 상태였다.

어머니는 마지막 막내딸 차례 때는 목사님도 아니고, 초라한 차림의 사모님이 왔음을 결눈으로 봤다. 내 모습에 좌절하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다. 그런데 자신의 딸들의 비탄 섞인 수군거림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 초라한 사모님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셨다고 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벌하기는커녕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트리며 가족들에게 이 고백을 전했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전율하며 주일 예배에 참석한 것이었다. 어제 보았던 병색 짙은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 보였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영광을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글 / 소중한사람들 사무자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이야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7)
암환우는 낫는 것이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두 날 가진 검으로 세우는 힐링센터, 두 날 가진 검을 가진 성도들을 세우는 힐링센터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는 현재 약 30여 명의 환우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센터에 최대 27명, 웨어하우스에 9명, 리트릿 센터에 6명을 모실 수 있지만, 이는 모두 정원이 찼을 때 가능한 수치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확장을 비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 이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받으셨을 때, 이곳이 '라합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역을 하면서 모두 크게 확장되었을 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장한다면 암환우 100명, 리트릿 센터 100명, 일반 기도자 50명, 호스피스 25명, 기타 50명으로 총 350여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운영될 미래를 위한 연습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왔던 환우들이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곳, 혹은 누군가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할 때 찾고 싶은 곳이 되게 하기 위해 매일 확장 사역을 이루는 도전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한번 그냥 지나가며 화장실이라도 사용하더라도 은혜를 받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운영합니다. 시설을 한번 둘러보고 가더라도 다시 와서 머물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옥에 갇힌 일에 대해 저를 비롯하여 소중한 사람들을 아는 분들은 이 충격이 확장 사역을 위한 일이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성도님들은 그 전보다 더욱 확장 소망 헌금을 내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어떻게 사역을 이뤄가시려는 것일까요? 도저히 제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현 상황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접견하려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확장 소망을 가진 분들이라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어머니 접견을 신청하는데, 함께 가실 분들을 신청받습니다. 한 번 접견할 때 저를 포함하여 총 5명이 접견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접견하는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같은 만남을 갖지요. 뵈 때마다

어머니의 타오르는 확장 사역에 대한 열의가 날로 더 대단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하십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하나님의 이 소망을 나누려고 접견실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매주 확장하고자 하는 소망을 단단히 하며 그 시간을 채워갑니다. 옥중 생활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매일 글을 쓰시고 계십니다. 다만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지난 2025년 연말에 전한 설교 중 시편 149편의 말씀이 저에게 강하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못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라도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시 149:5-9)

부당한 재판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에게 바로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라와 권세와 법을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십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강하게 도전된 것은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칼은 늘 말씀을 상징합니다. 두 날 가진 예리한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검이야말로 소중한 사람들을 확장하게 하는 이유이며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2026년 1월 1일부터 매일 말씀 묵상 가이드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환우들이 말씀을 더 예리하게 세움으로써 모두 병이 나아 집으로 돌아가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누구든지 저의 말씀 사역을 통해 개인의 말씀의 검이 예리해져 각자의 삶이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머니의 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한국은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 변화는 두 날 가진 칼, 곧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변화의 현장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글 / 이성일 목사



▲ 산책 전 힐링센터 입구에서



▲ 서울나눔클리닉 공연



▲ 신정맞이 웃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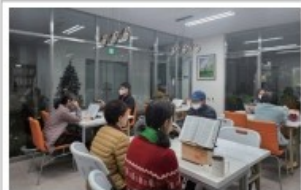
▲ 예배



▲ 서울나눔클리닉 공연



▲ 성경1독사상



▲ 아침성경공부모임



▲ 캘리그라피 소모임



▲ 서울나눔클리닉 공연



▲ 신정맞이 웃음이



▲ 예배



▲ 탁구

청평힐링센터후원물품



▲ 강신영 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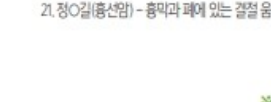
▲ 강신영 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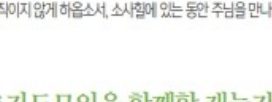
▲ 김순정 굴



▲ 김효숙 굴



▲ 남승범 굴



▲ 송영수 쌀



▲ 송영수 키위



▲ 오분순 어묵



▲ 임종국 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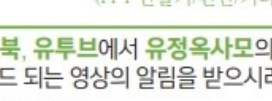
▲ 정경희 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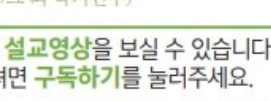
▲ 전미희 떡



▲ 정종순 굴, 고구마



▲ 조숙 굴



▲ 조숙, 김포숙 굴

청평 힐링센터 암 환우를 위한 중보기도

소중하신사람들힐링센터는 매주 목요일 중보기도회를 가집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배○경(매암4기) - 독성항암(도세탁성) 부작용 부종으로 중단하고 1상 신약 임상연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순차적 진행되게 하소서
2. 송○수(위암) - 12/23일 결과 그대로 잘 유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작용 없이 치료 잘 받고 림프전이 된 것 깨끗해져서 2026년에는 완전판에 들어 환치되게 하소서
3. 박○현(위암) - 위 절제 후 호흡 길이가 잘만 정도 들어들었습니다. 함한 찬양할 수 있게 치료하여 주세요
4. 임○국(임파결4기) - 12/4일 CT, FCT 검사 결과 암세포가 거의 사멸되어서 재발 방지를 위해 2개월에 한번씩 유지치료를 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립선암, 위암, 외투세포종양 한 전과배되어 전도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 주옵소서
5. 이○진(난소암4기 림프전이) - 영과육이 고침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요양원에 계신는 뇌경색 중증장애인 암마의 굵고 내려앉은 척추를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아픈 가족들을 돌보는 언니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믿고 감사합니다.
6. 정○순(유방암, 폐 림프결전이) - 바꾼 보약 (젤로라)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최대로 발휘하여 정종순의 임파선과 척추뼈에 전이된 암덩어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었으니 암덩어리는 태워지고 사라질뿐이다.
7. 구○희(유방암, 간, 뼈전이) - 1/2일 검사결과 간에 있는 암세포의 크기가 줄었습니다. 내성이 생기지 않고 암이 모두 사라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8. 윤○기(대장암) - 인자하신 하나님,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새로운 표적항암제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9. 이○옥(유방암, 흉선암) - 피부림프종으로(군상식육종) 종선암 치료 3회 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효과가 속히 나타나 치료 횟수가 줄어 부작용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며 오고 가는 길 주님이 인도 하옵소서
10. 남○범(위암) - 복막에 전이되어 악을 바꾸었는데 이번 암으로 모든 암이 사라지게 하셔서 남은 인생 예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소서
11. 김○중(골수다발종) - 날로날로 치유되는 저를 보면서 가족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길 눈물로 기도합니다.
12. 박○희(자궁암, 종양4기) - 소사립에서 영혼육이 더 새롭게 되어 세상가운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13. 오○순(대장암, 간전이) - 사랑의 하나님 고독의 한복판에서 아버지께 찾게 저를 용서하옵소서. 나의 눈물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슬픔은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14. 김○중(협막암) - 여호와 라파 하나님 조금 남아있는 암세포를 모두 제거해 주실줄 믿습니다. 연약한 몸을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15. 김○덕(방광암, 복막, 골반전이) - 항암을 마치고 1월말 CT결과를 봅니다. 모든 여건과 주어진 시간동안 성경 일독에 도전합니다. 2월말까지 일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16. 김○금(담낭암) - 표적 항암으로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소멸되고 새롭게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여 주옵소서
17. 손○신(홍선암) - 매주 맞는 혈소판주사 치료에 예수의 피로 덮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가 극대화되고 모든 혈액수치가 정상에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18. 남○범(위암) - 신약으로 임상 치료가 가능한 조건이 되고, 이 신약으로 암이 소멸되게 하소서. 남은인생 건강한 영혼육으로 예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소서.
19. 강○영(삼중증성유방암, 뇌전이) - 감사히 잘 복용중인 젤로라 항암으로 복용할때마다 치료의 광선을 몇번에 더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몸으로 전이된 암세포들 모두 사멸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20. 김○숙(대장암) - 모든 잔존 암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깨끗하게 사멸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셨음을 선포하게 해주셔서 주님과 함께 완전 관해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21. 서○순(유방암) - 앞으로의 모든 치료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모든 암세포가 내 몸에서 사멸되고 환치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22. 장○길(홍선암) - 흉미과 폐에 있는 결절 움직이지 않게 하옵소서. 소사립에 있는 동안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모임을 함께할 재능기부자들을 기다립니다.※
(PPT 만들기/전반/기타/그 외 약기연주)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유정옥사모의 설교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의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소중하신사람들 힐링센터
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



Hospice Precious People
www.youtube.com/user/miholoveone

2026년 1월 청평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확장소망헌금●

김병식(100,000) 임종국(500,000) 임종국(200,000) 임종국(300,000) 임종국(200,000) 전두희(50,000) 전두희(100,000) 한승환(100,000)
한창식(1,000,000) 황우진(3,000,000)

●목적헌금●

조은래(7,033,712)

●천사헌금●

장형자(1,000,000) 황우진(2,000,000) 윤용석(1,000,000) 윤가은(1,000,000) 김진(1,000,000) 한채리(1,000,000) 한태수(1,000,000) 한승환(1,000,000)
한정숙(1,000,000) 한승민(1,000,000) 한진서(1,000,000) 양민자(1,000,000) 강정희(1,000,000)

●십일조●

강모승(50,000) 김여중(100,000) 김효숙(100,000) 김홍덕(80,000) 남승범(100,000) 박갑진(127,000) 박선인(130,000) 박용범(280,000)
배윤경(116,000) 손문선(300,000) 최영자(130,000) 최은희(200,000)

●주일헌금●

강신영(50,000) 서미순(10,000) 서미순(10,000) 서미순(10,000) 서미순(10,000) 박문숙(10,000)

●감사헌금●

감사합니대(100,000) 강금숙(10,000) 강신영(100,000) 고선하(30,000) 구남진(100,000) 구만정(20,000) 구국희(300,000) 권국형(100,000)
권점목(50,000) 권혜조(100,000) 권홍량(150,000) 김덕용(50,000) 김명식(50,000) 김미화(550,000) 변영미(500,000) 김병식(400,000)
김보영(100,000) 김순금(600,000) 김영관(100,000) 김영미(50,000) 김여중(100,000) 김외숙(100,000) 김은주(100,000) 김현순(30,000)
김혜은(20,000) 김혜정(20,000) 김효숙(50,000) 김홍덕(400,000) 남승범(250,000) 류병완(100,000) 문병숙(20,000) 박문숙(200,000)
박봉희(230,000) 박선영, 박진숙(20,000) 박선인(120,000) 박성희(150,000) 박지현(270,000) 배윤경(500,000) 백현미(20,000) 서강일(50,000)
서미순(200,000) 성안숙(100,000) 성혜숙(200,000) 소말사랑(300,000) 소정희(200,000) 손문선(350,000) 송기승(50,000) 송영수(180,000) 윤성근(20,000)
양경일(50,000) 연영희(10,000) 염애석(10,000) 오분순(180,000) 오임순(20,000) 원미연(50,000) 윤경선(50,000) 윤성근(20,000)
이상길(20,000) 이상숙(20,000) 이상일(400,000) 이상복(10,000) 이주희(30,000) 이태규(50,000) 이혜숙(50,000) 이혜옥(100,000)
임경남(100,000) 임종국(1,000,000) 임종국(500,000) 전대진(50,000) 전선희(30,000) 전소연(200,000) 장동익(60,000) 장숙(50,000)
정미연(50,000) 정종순(150,000) 정찬길(50,000) 정태웅(500,000) 조숙(150,000) 조정덕(100,000) 조홍제(285,405) 최영자(70,000)
최영희(10,000) 최은선(50,000) 최정희(1,000,000) 추종석(200,000) 한창식(400,000) 한애경(10,000) 황보순(100,000)

●송구영신헌금●

강신영(50,000) 박문숙(50,000) 변영미(100,000) 송연숙(200,000) 이상일(50,000) 이주희(50,000) 이혜숙(50,000) 이희진(50,000)

●기관후원헌금●

가락재일교회(100,000) 경주한빛교회(50,000) 계영산업(100,000) 권오성의관(100,000) 목회지원센터(200,000) 서울서교회(100,000) 서울중앙교회(100,000) 왕송약국(500,000)
울산오봉개교회(100,000) (주)토틸아엔비(100,000) 두엘브(218,000)

●정기후원금(CMS)●

공은영(30,000) 권태준(10,000) 김미화(20,000) 김민정(20,000) 김성자(20,000) 김성희(20,000) 김순금(100,000) 김영배(50,000)
김영신(30,000) 김완돈(30,000) 김운집(30,000) 김인경(50,000) 김안숙(10,000) 김조(30,000) 김지영(10,000) 김진영(10,000)
김현정(100,000) 김혜원(30,000) 김화연(20,000) 김호진(100,000) 나일주(100,000) 나지용(15,000) 남승범(30,000) 단선화(50,000)
도주은(100,000) 문화순(10,000) 박경미(20,000) 박성환(50,000) 박연정(10,000) 박영자(20,000) 박완준(50,000) 박윤희(30,000)
박정우(30,000) 박효정(30,000) 변영미(50,000) 서종일(10,000) 성안숙(250,000) 소한태(10,000) 송연숙(50,000) 송필례(30,000)
양문정(100,000) 오분순(20,000) 오선희(50,000) 유미형(10,000) 윤성복(50,000) 윤인초(10,000) 윤종순(30,000) 이금순(50,000)
이다연(10,000) 이미진(10,000) 이상림(100,000) 이소영(30,000) 이승은(30,000) 이은숙(10,000) 이정자(50,000) 이주현(10,000)
이준영(10,000) 이찬선(5,000) 이혜경(50,000) 임재현(1,000,000) 임상숙(30,000) 장미경(20,000) 장선옥(10,000) 장소현(30,000)
장승아(10,000) 장호형(50,000) 정경희(30,000) 정미선(50,000) 정예은(5,000) 정우찬(30,000) 정일금(10,000) 정현명(50,000)
조남남(20,000) 조영실(40,000) 조재성(10,000) 최성(20,000) 최선숙(1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정일(20,000)
하정숙(20,000) 하혜원(10,000) 하경순(50,000) 현성원(50,000) 홍금주(10,000) 홍덕기(50,000) 황춘희(20,000)

청평힐링센터 2026년 1월 - 수입·지출 보고서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목적헌금	7,033,712	자동차 주유비 및 운영비	1,863,026
천사헌금	14,000,000	자동차 할부금 및 보험료	1,200,000
확장소망헌금	5,550,000	식자재구입비	8,646,453
십일조	2,143,000	전기요금	6,703,770
감사헌금	13,665,405	가스요금	787,200
CMS헌금	4,125,000	수리비	5,770,500
주일헌금	100,000	안전관리비	587,500
		합산보험료	3,404,440
		홈페이지/ CMS사용료	297,500
		집기구입비	535,754
		급여인건비	15,347,310
		우편발송비	245,290
금월 수입 합계	46,617,117	지출 총액	45,388,743
전월 이월금	14,681,239		
총 수입 합계	61,298,356	금월 잔액	15,909,613

소중한사람들 - 확장소망헌금명단

1월: 김병식(100,000) 임종국(500,000) 임종국(200,000) 임종국(300,000) 임종국(200,000) 전두희(50,000) 전두희(100,000) 한승환(100,000) 한창식(1,000,000) 황우진(3,000,000)

* 1월말 현재 총, 185,000,442원

소중한사람들 확장소망헌금 후원 계좌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 소나무헌금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여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자기 부담금을 지원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의료헌금입니다.

2026년 1월 씨앗헌금 후원 : 김행심(10,000) 박문숙(1,000,000) 이상숙(20,000) 이순미(50,000) 조은영(300,000) 한홍석(200,000) 한채리(520,000)

2026년 1월 소나무헌금 지출: 이○옥(388,780) 조○(481,920) 이○옥(208,740) 조○(361,440) 이○옥(457,940) 남○범(1,065,280) 조○(301,200)

소나무 사역 후원 계좌 농협 351-1158-7628-73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에 천사회원이 되어주세요.

암환자들의 안식과 영혼구원을 위한 쉼터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암 환우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암 환우 힐링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암은 가족 한사람의 질병이 온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우와 가족들을 전인적으로 돌보아 드리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께 인도 될 수 있도록 오직 환우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사회원은 후원하신 후에 성함,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010-7195-3045 이성일 목사).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사역에 천사회원이 되어서 기도 해 주시고 후원에 주심으로 계속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청평힐링센터 운영천사회원 1월 가입자 명단 (14명)

618 정형자 619 황우진 620 황우진 621 윤용석 622 윤기은 623 김진 624 한재민 625 한대수 626 한승환 박세영 627 한정숙,한정금 628 한승민 629 한진서 630 양인자 631 강정혜

운영천사 회원명단

1	이영희	2	최미영	3	최미영	4	유재민	5	이영희	6	김수영	7	김수영	8	이영희	9	조주영	10	박영희	11	박영희	12	정동영	13	조현민	14	정영희
15	이영희	16	박영희	17	김영희	18	김영희	19	김영희	20	김영희	21	김영희	22	김영희	23	김영희	24	김영희	25	김영희	26	김영희	27	김영희	28	김영희
29	김영희	30	김영희	31	김영희	32	김영희	33	김영희	34	김영희	35	김영희	36	김영희	37	김영희	38	김영희	39	김영희	40	김영희	41	김영희	42	김영희
43	김영희	44	김영희	45	김영희	46	김영희	47	김영희	48	김영희	49	김영희	50	김영희	51	김영희	52	김영희	53	김영희	54	김영희	55	김영희	56	김영희
57	김영희	58	김영희	59	김영희	60	김영희	61	김영희	62	김영희	63	김영희	64	김영희	65	김영희	66	김영희	67	김영희	68	김영희	69	김영희	70	김영희
71	김영희	72	김영희	73	김영희	74	김영희	75	김영희	76	김영희	77	김영희	78	김영희	79	김영희	80	김영희	81	김영희	82	김영희	83	김영희	84	김영희
85	김영희	86	김영희	87	김영희	88	김영희	89	김영희	90	김영희	91	김영희	92	김영희	93	김영희	94	김영희	95	김영희	96	김영희	97	김영희	98	김영희
99	김영희	100	김영희	101	김영희	102	김영희	103	김영희	104	김영희	105	김영희	106	김영희	107	김영희	108	김영희	109	김영희	110	김영희	111	김영희	112	김영희
113	김영희	114	김영희	115	김영희	116	김영희	117	김영희	118	김영희	119	김영희	120	김영희	121	김영희	122	김영희	123	김영희	124	김영희	125	김영희	126	김영희
127	김영희	128	김영희	129	김영희	130	김영희	131	김영희	132	김영희	133	김영희	134	김영희	135	김영희	136	김영희	137	김영희	138	김영희	139	김영희	140	김영희
141	김영희	142	김영희	143	김영희	144	김영희	145	김영희	146	김영희	147	김영희	148	김영희	149	김영희	150	김영희	151	김영희	152	김영희	153	김영희	154	김영희
155	김영희	156	김영희	157	김영희	158	김영희	159	김영희	160	김영희	161	김영희	162	김영희	163	김영희	164	김영희	165	김영희	166	김영희	167	김영희	168	김영희
169	김영희	170	김영희	171	김영희	172	김영희	173	김영희	174	김영희	175	김영희	176	김영희	177	김영희	178	김영희	179	김영희	180	김영희	181	김영희	182	김영희
183	김영희	184	김영희	185	김영희	186	김영희	187	김영희	188	김영희	189	김영희	190	김영희	191	김영희	192	김영희	193	김영희	194	김영희	195	김영희	196	김영희
197	김영희	198	김영희	199	김영희	200	김영희	201	김영희	202	김영희	203	김영희	204	김영희	205	김영희	206	김영희	207	김영희	208	김영희	209	김영희	210	김영희
211	김영희	212	김영희	213	김영희	214	김영희	215	김영희	216	김영희	217	김영희	218	김영희	219	김영희	220	김영희	221	김영희	222	김영희	223	김영희	224	김영희
225	김영희	226	김영희	227	김영희	228	김영희	229	김영희	230	김영희	231	김영희	232	김영희	233	김영희	234	김영희	235	김영희	236	김영희	237	김영희	238	김영희
239	김영희	240	김영희	241	김영희	242	김영희	243	김영희	244	김영희	245	김영희	246	김영희	247	김영희	248	김영희	249	김영희	250	김영희	251	김영희	252	김영희
253	김영희	254	김영희	255	김영희	256	김영희	257	김영희	258	김영희	259	김영희	260	김영희	261	김영희	262	김영희	263	김영희	264	김영희	265	김영희	266	김영희
267	김영희	268	김영희	269	김영희	270	김영희	271	김영희	272	김영희	273	김영희	274	김영희	275	김영희	276	김영희	277	김영희	278	김영희	279	김영희	280	김영희
281	김영희	282	김영희	283	김영희	284	김영희	285	김영희	286	김영희	287	김영희	288	김영희	289	김영희	290	김영희	291	김영희	292	김영희	293	김영희	294	김영희
295	김영희	296	김영희	297	김영희	298	김영희	299	김영희	300	김영희	301	김영희	302	김영희	303	김영희	304	김영희	305	김영희	306	김영희	307	김영희	308	김영희
309	김영희	310	김영희	311	김영희	312	김영희	313	김영희	314	김영희	315	김영희	316	김영희	317	김영희	318	김영희	319	김영희	320	김영희	321	김영희	322	김영희
323	김영희	324	김영희	325	김영희	326	김영희	327	김영희	328	김영희	329	김영희	330	김영희	331	김영희	332	김영희	333	김영희	334	김영희	335	김영희	336	김영희
337	김영희	338	김영희	339	김영희	340	김영희	341	김영희	342	김영희	343	김영희	344	김영희	345	김영희	346	김영희	347	김영희	348	김영희	349	김영희	350	김영희
351	김영희	352	김영희	353	김영희	354	김영희	355	김영희	356	김영희	357	김영희	358	김영희	359	김영희	360	김영희	361	김영희	362	김영희	363	김영희	364	김영희
365	김영희	366	김영희	367	김영희	368	김영희	369	김영희	370	김영희	371	김영희	372	김영희	373	김영희	374	김영희	375	김영희	376	김영희	377	김영희	378	김영희
379	김영희	380	김영희	381	김영희	382	김영희	383	김영희	384	김영희	385	김영희	386	김영희	387	김영희	388	김영희	389	김영희	390	김영희	391	김영희	392	김영희
393	김영희	394	김영희	395	김영희	396	김영희	397	김영희	398	김영희	399	김영희	400	김영희	401	김영희	402	김영희	403	김영희	404	김영희	405	김영희	406	김영희
407	김영희	408	김영희	409	김영희	410	김영희	411	김영희	412	김영희	413	김영희	414	김영희	415	김영희	416	김영희	417	김영희	418	김영희	419	김영희	420	김영희
421	김영희	422	김영희	423	김영희	424	김영희	425	김영희	426	김영희	427	김영희	428	김영희	429	김영희	430	김영희	431	김영희	432	김영희	433	김영희	434	김영희
435	김영희	436	김영희	437	김영희	438	김영희	439	김영희	440	김영희	441	김영희	442	김영희	443	김영희	444	김영희	445	김영희	446	김영희	447	김영희	448	김영희
449	김영희	450	김영희	451	김영희	452	김영희	453	김영희	454	김영희	455	김영희	456	김영희	457	김영희	458	김영희	459	김영희	460	김영희	461	김영희	462	김영희
463	김영희	464	김영희	465	김영희	466	김영희	467	김영희	468	김영희	469	김영희	470	김영희	471	김영희	472	김영희	473	김영희	474	김영희	475	김영희	476	김영희
477	김영희	478	김영희	479	김영희	480	김영희	481	김영희	482	김영희	483	김영희	484	김영희	485	김영희	486	김영희	487	김영희	488	김영희	489	김영희	490	김영희
491	김영희	492	김영희	493	김영희	494	김영희	495	김영희	496	김영희	497	김영희	498	김영희	499	김영희	500	김영희	501	김영희	502	김영희	503	김영희	504	김영희
505	김영희	506	김영희	507	김영희	508	김영희	509	김영희	510	김영희	511	김영희	512	김영희	513	김영희	514	김영희	515	김영희	516	김영희	517	김영희	518	김영희
519	김영희	520	김영희	521	김영희	522	김영희	523	김영희	524	김영희	525	김영희	526	김영희	527	김영희	528	김영희	529	김영희	530	김영희	531	김영희	532	김영희
533	김영희	534	김영희	535	김영희	536	김영희	537	김영희	538	김영희	539	김영희	540	김영희	541	김영희	542	김영희	543	김영희	544	김영희	545	김영희	546	김영희
547	김영희	548	김영희	549	김영희	550	김영희	551	김영희	552	김영희	553	김영희	554	김영희	555	김영희	556	김영희	557	김영희	558	김영희	559	김영희	560	김영희
561	김영희	562	김영희	563	김영희	564	김영희	565	김영희	566	김영희	567	김영희	568	김영희	569	김영희	570	김영희	571	김영희	572	김영희	573	김영희	574	김영희
575	김영희	576	김영희	577	김영희	578	김영희	579	김영희	580	김영희	581	김영희	582	김영희	583	김영희	584	김영희	585	김영희	586	김영희	587	김영희	588	김영희
589	김영희	590	김영희	591	김영희	592	김영희	593	김영희	594	김영희	595	김영희	596	김영희	597	김영희	598	김영희	599	김영희	600	김영희	601	김영희	602	김영희
603	김영희	604	김영희	605	김영희	606	김영희	607	김영희	608	김영희	609	김영희	610	김영희	611	김영희	612	김영희	613	김영희	614	김영희	615	김영희	616	김영희
617	김영희	618	김영희	619	김영희	620	김영희	621	김영희	622	김영희	623	김영희	624	김영희	625	김영희	626	김영희	627	김영희	628	김영희	629	김영희	630	김영희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를 위한 천사회원(1구좌 100만 원, 분납 가능)과
싸앗헌금(자유 기부)에 참여하려면 아래 전화로 문의하고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전화 031-582-0191 | 송금계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리트릿 센터(Retreat Center)

말씀과 자연, 쉼을 통하여 힐링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도원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아래에서 평안한 쉼을 얻는 것입니다.

- 입소 기준 : 예수 믿는 누구나 쉼을 원하시면 입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정신 질환, 전염병이 있는 분, 이단 단체 및 개인, 기타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제외).
- 입소 기간 : 한번 신청 시 최대 6일을 지낼 수 있으며, 퇴소기준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오셨더라도 토요일 오전에는 모든 입소자가 퇴실하게 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입소 비용 : 무료입니다.
- 입소 수칙 : 하루 두 번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믿음이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입소 절차에서 교회 출석을 점검합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이므로 공동 생활을 원치 않으시면 입소가 어렵습니다. 최대 3-4명 정도가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031-582-0191) -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



리트릿 센터를 이용하셨던 분들의 소중한 후기를 담았습니다.

1. 권○량(5일이용)

이곳에 도착해서 보니 한얼산 기도원 바로 밑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참 좋은 곳에 자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한분 한분이 대부분 말기 암이나 전이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계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대하면서 저 자신 무장이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매일 두 번의 예배와 한 번의 중보기도를 드리는데 모두들 힘을 다해 찬양하며, 다른 환우를 위해 온힘을 다하여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대하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섬기시는 분들과 이곳에 계시는 환우님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넘쳐흐르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서비스와 숙식에 값을 지불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은혜였습니다.

2. 김○화(4일이용)

유정옥 사모님의 책을 읽고 이곳 소중한사람들에 너무 와보고 싶었습니다.

이곳에 오면 제 모든 암이 다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3박 4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곳에서 한순간도 감사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따뜻한 눈빛, 힘이 되는 말씀들 감동 한아름 안고 갑니다.

예배의 기쁨을 알고 갑니다. 다시 또 오고 싶은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인도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3. 임○진(5일이용)

잠시 세상에서의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로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새해선물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암 환우들이 천국 같은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에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만 기쁘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읽으며 또한 환우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다시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려가서도 잊지 않고 이 사역이 계속되어 주님이 기뻐하시고 넘치는 복을 주시고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려 합니다.

4. 신○현(6일이용)

단순히 '일주일 정도의 체험해보자' 라는 가벼운 마음을 리트릿센터에 입소해서 많은 생각과 은혜들로 충만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성경읽기도, 통독의 방법도 알게 되었고 오전예배, 중보기도, 저녁예배시간,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간간히 산책도 힐링 되었고 일주일 2번의 불명 시간도 아주 최고였네요.

일주일동안 예배와 몸과 마음이 더욱 새로워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5. 권○형(6일이용)

새벽 6시 40분, "90일 통큰통록"으로 아침 운동을 하니 영의 눈이 번쩍 뜨이고 영의 근육이 단단해 졌습니다. 오전 11시, 오후 7시 두 차례의 예배는 늘 부흥회였습니다.

저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귀한 시간은 매일 오후4시30분에 있는 중보기도였습니다.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에 있는 성도님들 한분 한분 성함을 불러가며 개인 기도제목을 함께 읽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치유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한 지인 중에 암 환우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도 그들에게 영육간에 강 건함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세 번의 건강식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청결하고 소박한 숙소, 고요하고 맑은 공기, 생명수, 계곡 물소리 등등 모든 것이 완벽한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이었습니다.

질병을 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사랑공동체가 바로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입니다.

6. 전○연(6일이용)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별 기대 없이 지인 언니와 함께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주위 환경과 어울어진 숙소, 환우들에게 맞는 맛있는 식사 속에 목사님의 환우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에 감격했습니다. 성경통독과 오전, 저녁예배와 중보기도가 쉽 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은혜가 넘쳐흘렀습니다. 환우들이 서로를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위로하며 격려하였고

큰소리로 말씀을 선포하며 치유와 회복 속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이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환우들이 악할 때 주님께 병 낫기를 간구하며 나갈 때, 놀라운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믿습니다.

7. 권○조(4일이용)

지인소개로 낯설지만 꼭 한번 와보고 싶던 소중한사람들에 방문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맛있고 건강한 정성 가득한 육의 식사 뿐 아니라 기도와 말씀, 찬양과 예배로 가득한 이 공간에서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돌아갑니다. 계속 전이되는 암과 5년간 동행하면서 조금은 지치기도하고 낙심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곳에 와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8. 주○미(4일이용)

폐암 절제 수술 후 선교사님을 통해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를 알게 되어 1월19일부터 22일까지 머물다 돌아왔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의 하루하루가 암을 통해 지금 나의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깨달으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 드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75년간 삶을 돌아보며, 미뤘었던 불순종, 말씀 묵상, 환경에 따라 적당히 믿어온 것 등 분주하여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서울역 이야기

서울역 전도

소중한사람들은 매주 주일 서울역 광장으로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전도자들은 노숙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적게나마 나누어 드리고,
노숙인들은 감사로 화답합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도자들은 그들의 감사한 마음을 받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사람들입니다.

서울역 전도팀: 이성일, 이주희, 김명옥, 박종수, 강원봉, 김정미,
송기승, 이상훈, 최영화



소중한사람들 노숙인 사역 이야기

내 아들에게 꼭 물려줄 재산

내가 소중한사람들에 봉사를 나가기 시작한 건 벌써 6년 전이다. 당시 나는 강남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이었고, 회사가 전남 나주로 이전하면서 낯설고 물결은 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대학을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해버렸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 삶과는 무관한 분야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감기몸살로 휴가를 내고 집에 있던 중 아파트 앞에 엠블런스 1대가 도착하더니 흰 천에 덮인 사신이 실려 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됐다. 잠시 후 회사에서 부고 문자가 왔다. 자주 출근길을 함께했던 동료가 오늘 새벽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다 급기야 환장까지 들었다. "한 차장, 나야. 나왔어. 문 좀 열어봐."

그 무렵, 대학 시절 교회 수련회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연락이 왔다. 수척해진 내 얼굴을 보더니 "서울역에서 노숙인들에게 밥퍼 봉사를 하는 교회가 있는데, 함께 가보자. 좋은 일을 하면 마음도 편해질지 몰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주일, 나는 나주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내가 산 쌀과 반찬도 아닌데, 나이 어린 나에게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고맙다는 노숙인들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이런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나...

그날 소중한사람들을 설립한 유정옥 사모님을 처음 만났다.
"사모님, 저 다음 주에도 올게요."
"아이유~ 나주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와? 가끔 서울 올 일 있으면 언제든 와요."
사모님의 만류에도 나는 1년 동안 매주 봉사를 나갔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편해졌고, 환경도 사라져갔다. 어느 순간부터는 봉사하러 가는 길이 설레고 기다려지기까지 했다.

한 번은 병원 수간호사로 일하는 사촌언니를 데려갔다.
"노숙인 사역이라길래 엄청 냄새나고 어수선했을 줄 알았는데, 여긴 너무 질서 있고 깨끗하다? 우리 병원은 자기 먼저 살겠다고 싸우는 환자를 때문에 난리야. 자기가 더 응급환자라며 새치기하고 소리 지르고..."
"그치? 나도 처음엔 유통기한 다된 음식이나 수입산 고기 정도 줄 줄 알았거든. 근데 세상에, 조미료 하나도 안 쓰고 음식을 한데. 이분들이 작은 예수라면서 제철 과일에 국산 고기까지 후원하는 분들이 많대."

"야, 이게 현대판 오병이여. 나보다 잘 먹고 사네~"

때로는 소란을 피우는 노숙인들도 있었다. 하루는 어떤 험악하게 생긴 노숙인이 사모님께 욕박지르는 걸 봤다. 나는 그 광경이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떨구며 '이 사람들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 무슨 짓을 못 하겠어? 이런 일이 하루 이틀도 아니었을 텐데, 유 사모님은 그 세월을 어떻게 견뎌오셨을까?'라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함께 배식을 받던 덩치 큰 노숙인 몇 분과 어르신들이 나서서 "거기! 밥 먹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밥 먹으러 왔으면 조용히 밥이나 쳐묵어!" 그러자 난동을 부리던 노숙인은 혼자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금세 어린아이가 되어 자리로 돌아가 밥을 먹기 시작했다. '야, 사모님은 혼자자 아니었구나.' 어느 새 소중한사람들과 노숙인들은 서로를 의지하는 사이가 된 것이다. 한번은 소중한사람들이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한 노숙인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우릴 사람 대접해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 다른 교회 가면 천원씩 주고 나가라고해. 성도들 떨어진다..."

그렇게 1년간 봉사를 이어가던 중, 나는 유 사모님의 중매로 결혼까지 하게 됐다. 하나님께서는 귀엽고 건강한 아들도 주시고, 서울로 발령도 내 주셔서 이제는 온 가족이 교회 가까이 살며 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아들 돌잔치 때는 돌떡과 수건을 노숙인들과 나누었고,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동육이 이빠, 동육이 엄마! 내가 만날 가정을 위해 기도해~" 이제 세 살배기 아들은 노숙인들을 무서워하기는커녕, 할아버지들께 인사하며 사랑받는 재미에 교회에 간다.

나에게는 아들에게 물려줄 큰 재산은 없지만, 꼭 물려주고 싶은 게 하나 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

글 | 소중한사람들 노숙인 사역 봉사자

소중한사람들 교회



▲ 1월 1일 새해 식사 전경



▲ 강동은누리교회



▲ 개인봉사자



▲ 개인봉사자



▲ 모레내교회



▲ 서부침례교회



▲ 서빙고은누리교회



▲ 식사전경



▲ 에클레시아



▲ 이대부초성경동독팀



▲ 이대부초성경동독팀



▲ 이삭희37기



▲ 점심식사



▲ 조이어스교회



▲ 조이돌교회, 소망교회



▲ 함께돌려

소중한사람들 교회 매일 오전 10시 30분 예배와 점심나눔

노숙인들이 마음 놓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워주신 노숙인 전용 교회인 소중한사람들 교회는 명절이나 휴일도 없이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온 지 22년을 되었습니다.

소중한사람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루 70-100명의 노숙인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1월에는 서부침례교회(3일), 이대부초성경동독팀(6,20,27일), 조이어스교회(8일), 에클레시아(10일), 함께돌려(17일), 이삭희37기(19일), 서빙고은누리교회(20일), 강동은누리교회(23일), 모레내교회(24일), 조이돌교회(31일), 소망교회(31일)가 봉사해 주셨습니다.

개인 봉사자들은

강하순, 권경희, 권미조, 김영옥, 박대근, 박봉희, 박진희, 송경옥, 손수정, 송홍열, 심지현, 이소영, 이항자, 임윤연, 전두희, 조희진, 최경희, 최금련, 황보혜, 한현희 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용수, 송기승, 이지영, 허정만, 한송희, 김경숙, 김광래, 정경희, 박인혜, 박문희, 장종숙, 강덕희, 김명옥, 이주희, 윤화, 최영화... 개인 봉사자들이 주일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소중한사람들 무료 급식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은 영혼이 더하여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월요일 이범수, 화요일 김재정, 수요일 정기중, 목요일 조진영, 금요일 이은철, 토요일 이상용, 주일 이성일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1년 동안 매달 3째주 월요일을 봉사해 주신 이삭희37기 감사합니다.

생애 · 치유 · 봉사

선한 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 19년동안 한결같은 사랑의 손길

주님이 병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해 주신 것과 같이 19년동안 한결같이 노숙인들을 찾아와 치료해 주시는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을 기다리는 노숙인들은 마치 아버지를 만난 듯 아픈 환부를 보이며 치료를 받는다. 외상이 심한 환자는 이창우 원장님이 즉석에서 수술까지 해주신다.

매월 둘째주 토요일 1시부터 진료가 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1:50-3:40

소중한사람들 사역을 기도로 돕기 위해 모이는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어느덧 1094회가 되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12월에 강해 중인 사무엘상 16-18장 말씀을 통해 기도했다. 소중한사람들 사역 공동의 기도 개인 요청기도를 함께 중보하며, 아픈 자들의 치유, 가정과 교회,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 중보기도 모임은 소중한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중보기도제목

1. 소중한사람들 사역

- 1) 노숙인들이 예수 영접, 건강, 직장,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 2) 소중한사람들교회 365일 예배와 점심 나눔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3) 진료, 상담, 사역, 이발, 의류 생필품 나눔의 공급과 봉사자

2.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

- 1) 최고의 의료진이 동역 할 수 있도록
- 2) 암환우들의 영, 육간의 완전한 치유

3. 소중한사람들 해외사역

고아 11후원 양육과 무료 급식-미안하, 중국, 멕시코, 북한, 아이티, 베트남

4. 치유 - 이혜옥, 배운경, 김흥덕, 김순금, 임종국, 이희진, 구숙희, 김효숙, 박성희, 오본순, 송영수, 강신영, 박지현, 서미순, 정종순, 김예중, 윤성근, 손을선, 정찬길, 남승범, 홍영숙, 박문숙, 남승범, 이영경, 홍영숙 임소해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5. 박효정, 이재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례, 김현중, 최은희, 이혜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준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민,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윤채원, 장영희, 김하영, 이순조, 김지은, 김형식, 권유승,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준기, 최영자, 이경숙, 이엘리, 김지연, 유필규, 조규철, 이병설, 구현주, 전상희, 이광미, 천정희, 방연자, 박철민 다시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6. 신형진님 근육수축증 치료 신약 노바티스 Itrisma 가격이 내려가고 정부의 지원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약을 의지하기 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요청했습니다.



후원자님들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중보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street9106@naver.com 010-4935-2445<문자로>

다양한 봉사 참여

다양한 봉사로 소중한사람들과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이대부초성경동독팀과 소중한찬양단, 박종수목사님
- * 소식지 우편물 작업 지원 봉사를 해주시는 이대부초성경동독팀
- * 18명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 주신 선한목자병원 이창우 원장님과 간호사 선생님
- * 22명의 노숙인들에게 이발 봉사를 해 주신 이발 미용 봉사단
- * 간식 나눔과 후원물품 나눔으로 함께 봉사에 참여해 주신 팀과 개인봉사들
- * 특송으로 예배를 섬기신 에클레시아
- * 서울역 전도를 위해 부식을 나눔을 준비해주신 개인 봉사자

모두 감사합니다



▲ 주일 서울역전 전도 및 물품나눔



▲ 이대부초성경동독팀 소식지작업 지원



▲ 이미음봉사



▲ 개인봉사자 후원물 나눔



▲ 에클레시아 특송



▲ 선한목자병원 진료



▲ 이대부초성경동독팀 찬양인도



▲ 이대부초성경동독팀 소식지우편물작업 지원



▲ 이대부초성경동독팀 찬양인도

후원물품

- * 서울역 전도를 위한 커피를 후원하신 김명옥님 * 음식/부식을 준비해 오신 에클레시아, 조이어스교회, 이삭회37기
- * 육개장사발면을 1500여개 후원해 주신 이삭회 37기 * 육개장사발면과 두유를 후원해 주신 권미조님
- * 핫팩을 후원해주신 차지현, 소망교회사회봉사부 * 과일을 후원해주신 이소영, 강하순, 박용식, 푸드뱅크
- * 계란을 후원해주신 황귀용님 * 소뽕을 후원해주신 (주)하나프라이임, 유혜진
- * 소고기를 후원해주신 (주)하나프라이임, 이삭회37기

병과 과일, 그리고 여러 후원 물품으로 노숙인분들을 위해 섬겨주신 후원자 분들의 섬김 감사드립니다.

1월 후원 물품내역						
후원일	후원자	후원물품	후원수량	사용일	사용내역	사용처
1/6	푸드뱅크	쌀	200kg	1/7~	급식	소중한사람들과교회 노숙인
1/7	푸드뱅크	빵/ 부식	9박스	1/8	급식	소중한사람들과교회 노숙인
1/8	이소영	커피/커피	1박스	1/9~	급식	소중한사람들과교회 노숙인
1/8	이삭회37기	육개장사발면	9박스	1/11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8	조이어스교회	굴	2박스	1/8	급식	소중한사람들과교회 노숙인
1/9	강하순	굴	2박스	1/10	급식	소중한사람들과교회 노숙인
1/9	이삭회37기	육개장사발면	9박스	1/18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9	푸드뱅크	빵/ 부식	9박스	1/11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10	에클레시아	바나나	3박스	1/10	급식	소중한사람들과교회 노숙인
1/12	차지현	핫팩	1박스	1/13	나눔	소중한사람들과교회 노숙인
1/12	푸드뱅크	빵/ 부식	9박스	1/13	급식	소중한사람들과교회 노숙인
1/12	이삭회37기	육개장사발면	9박스	1/25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14	푸드뱅크	빵/ 부식	9박스	1/15	급식	소중한사람들과교회 노숙인
1/15	이삭회37기	육개장사발면	9박스	2/1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16	푸드뱅크	빵/ 부식	9박스	1/18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17	이삭회37기	고기	100인분	1/19	급식	소중한사람들과교회 노숙인
1/19	이삭회37기	육개장사발면	9박스	2/8(예정)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19	푸드뱅크	빵/ 부식	9박스	1/20	급식	소중한사람들과교회 노숙인
1/20	푸드뱅크	사인머스켓	20박스	1/21~	급식	소중한사람들과교회 노숙인
1/20	이삭회37기	육개장사발면	9박스	2/15(예정)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21	이삭회37기	육개장사발면	3박스	2/22(예정)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22	푸드뱅크	빵/ 부식	9박스	1/23	급식	소중한사람들과교회 노숙인
1/23	푸드뱅크	빵/ 부식	9박스	1/25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26	푸드뱅크	빵/ 부식	9박스	1/27	급식	소중한사람들과교회 노숙인
1/28	황귀용	계란	10판	1/29~	급식	소중한사람들과교회 노숙인
1/28	박용식	굴	10박스	1/28~	급식	소중한사람들과교회 노숙인
1/28	푸드뱅크	빵/ 부식	9박스	1/29	급식	소중한사람들과교회 노숙인
1/29	(주)하나프라이임	소고기	9박스	1/30~	급식	소중한사람들과교회 노숙인
1/30	푸드뱅크	빵/ 부식	9박스	2/1	나눔	서울역 거리노숙인
1/30	유혜진	소뽕	1박스	1/31~	급식	소중한사람들과교회 노숙인



소중한 사람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몇 년간 계속되는 군부 정치로 경제 위기를 맞이한 미얀마에서 2025년도 를 맞이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2026년도가 되었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소중한 사람들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기도,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학생들이 잘 자라고 있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만달레이, 따웅지 지진 피해로 센타에 와서 제자 양육을 받고 있는 학생 들이 지진 트라우마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센타를 자기 집처럼 편하게 생각하며, 잘 적응하고 있어 감사하고 있습니 다. 학생들은 주중에 아침 6시 30분에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학교 등교하 고, 오후에 돌아와서 베드민턴, 칠동 등 운동을 하거나, 세탁, 씻고, 오후 시장을 가기도 하고, 저녁 먹기 전까지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저녁을 먹 고, 7시 30분에 모두가 모여 잘 자냈는지 안부를 묻고, 저녁 예배를 드리 고, 자율 학습을 하고, 10시에 취침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센타에 서 준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유 시간을 보내며, 주말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자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에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요셉 아카데미 직업 훈련학교 에서 한국으로 유학가고 싶어하는 14명의 학생들을 위해 중·고등학교 한 국어 유학 과정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얀마 공교육 이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후로 엉망이 되어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시키고 있고, 한국 유학의 길이 열리도록 하 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많은 격려가 필 요한 상황입니다.

센타 밖의 세상은 험하지만, 학생들이 센타 안에서만큼은 반전이 좋지는 않아도 하루 세끼 밥을 양껏 먹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간사님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이 음식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에게 음식 나눔을 하였습니다.



▲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2일로 수련회를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수영도 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 팀을 나누어서 미얀마 전통 음식을 만드는 대회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간 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진지하게 음식들 을 만들고, 맛나게 먹었습니다.



◀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센타 주변의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음 식을 대접하고 함께 성탄의 의미를 전달하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 신년 3박 4일 수련회를 했습니다. 예배와 레크레이션, 주제 강의를, 전통 춤 등을 진행하였고, 서로 격려하며, 1년을 주님 안에서 승리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 니다.



한 달 전 저희에게 큰 아픔이 있었습 니다. 지금도 그 때 일을 생각하면 눈 물이 납니다. 옆 사진의 학생은 아웅 분칸입니다. 아웅분칸은 만달레이 지 역에서 지진 피해로 센타에 와서 제 자양육을 받던 학생이었는데,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하늘나라로 갔 습니다. 만달레이에서 부모님이 오시 고, 센타의 식구들과 장례식을 치렀 습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님과 친구를 잃은 학생들, 제자를 잃은 저희 선 교사와 간사들이 슬픔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희 선교사와 직원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스스로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못 들고,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미안해했습니다. 센타에 와서 제자 양육을 받는 학 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좋은 인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웃을 사랑하는 좋은 리더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의 선 교사와 간사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입니다. 코로나와 군부정치 때문에 몇 년씩 학교를 가지 못해 제 나이보다 몇 년씩 낮은 학년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 3학년



▲ 3학년



▲ 5학년



▲ 6학년



▲ 7학년



▲ 8학년



▲ 9학년



▲ 10학년



▲ 11학년



▲ 12학년



▲ 한국 유학 과정반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들고 센타 교회로 가는 학생들이 하나님께 세우 시는 귀하고 행복한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얀마의 경제가 안정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역하는 저희 선교사와 간사들의 건강과 저희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2026년 1월 15일
미얀마에서 김동호, 조현정 드림

후원자님께 드리는 편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빌립보서 1:6)
말씀에 반응하여 맡겨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작하신 이도, 지속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끄실 이 또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매서운 추위에 '서울 소중환사람들' 건물 2층과 3층의 수도가 열흘가량 얼어붙었습니다. 얼어붙은 물을 녹이려 제랑기를 확인하던 중, 상수도 파이프와 건물 유입 파이프 사이의 높이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수도가 얼지 않았다면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문제였고, 그대로 두었다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를 마친 이틀 뒤, 하나님께서 오후 햇살을 따스하게 비춰주신 덕분에 드디어 다시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 같지만, 그동안 봉사자들은 화장실조차 쓰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충정으로 역까지 가서 화장실을 쓰신 봉사자분도 계셨습니다.

특히 예전에 암 치료를 위해 청평 힐링센터에 계셨던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건강검진차 한국에 오신 김에 서울 소중환사람들 헬터에 머무셨습니다. 하필 머무시는 날부터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교지인 아프리카도 물이 안나오니 괜찮다”고 허허 웃어주셨지만, 죄송한 마음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또한, 동파된 파이프가 터질까 조마조마해하며 마치 자기 집 일처럼 수시로 들여다봐 주신 분의 수고도 있었습니다.

무려 네 팀의 설비 업체가 다녀간 끝에야 해결될 만큼 까다로운 작업이었지만, 함께 마음을 써주신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파이프 동파로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로하셨습니다.

기쁜소식교회의 새로운 담임목사님 부임과 함께 소중환사람들을 더 깊이 후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교회 이름처럼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문자 메시지만 읽었을 뿐인데도 그 너머로 행복해하시는 표정이 눈에 선해 참 신기했습니다.

소망교회 사회봉사부에서도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인 봉사를 문의하는 전화, 어떻게 후원하는 것이 사역에 가장 도움이 되겠냐며 되레 배려 섞인 질문을 건네주시는 분들 덕분에 참 고맙고 행복합니다. 늘 그랬듯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의 발걸음도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년 계획이 변경되어 더는 소중환사람들 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며 작별 인사를 건네주신 이삭회 37기는, 마음만은 여전히 함께라며 육개장 사발면 120만원어치를 후원하셨습니다. 이가 없어 씹기 불편한 나이든 노숙인들에게 사골을 끓여줬으면 좋겠다며 소뼈를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소중환사람들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귀한 동역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십니다. 노숙인 한 분을 더 섬기면 헌신자 한 분을 더 보내주십니다. 이곳에는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반, 그리고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머지 절반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십일조로, 목적헌금으로, 감사헌금, 선교헌금, 기관헌금, 정기후원(CMS), 천사후원헌금, 소나무헌금, 확장헌금, 교회헌금, 고아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소식지에 기록하며 다시금 이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주시고 직접 갚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앞날의 희망마저 잃고 거리에서 유리하던 노숙인들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365일 매일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선교헌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시시각각 변하는 외국의 사정을 주시하며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할 때에 전해주고자 늘 살피고 있습니다.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하여 헌금을 보내주신 손길을 통하여 암 환우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받고 있습니다. 환우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암에서 치유받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아픈 자를 치유하며, 갇힌 자를 자유케하는 예수님을 닮은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소중환사람들 사역을 위해 힘에 겹도록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사랑의 수고로 이 모든 사역을 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들이 겪고 있는 가족 간의 관계가 화목 되고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에 가장 많은 복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청평 소중환사람들 힐링센터에 입소해 있는 암환자 명단입니다.

이혜옥,배운경,김흥덕,김순금,임종국,이희진,구숙희,김효숙,박성희,오분순,송영수,강신영,박지현,서미순,정종순,김예중,윤성근,손을선,정찬길,남승범,홍영숙,박문숙,남승범,이영경, 홍영숙

청평 소중환사람들 힐링센터에서 암을 치유 받은 명단

박효정, 이재호, 이복희, 이상철, 이희열, 이기열, 박영례, 김현중, 최은희, 이혜숙, 김연희, 이옥경, 안정희, 유준애, 이영숙, 정동익, 이정화, 고혜옥, 김순정, 최정임, 권은미, 이미진, 신현숙, 박경미, 황순찬, 구재은, 인종복, 김미희, 윤채원, 장영희, 김하양, 이순조, 김지윤, 김형식, 권유송, 이은규, 주재희, 허미옥, 최봉관, 육준기, 최영자, 이경숙, 이엘리, 김지연, 유필규, 조규철, 이병설, 구현주, 전상희, 이광미, 천정희, 방연자, 박철민 다시는 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2년을 한결같이 소중환사람들과 동역해온 후원자님들에게 날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후원자님들께 선물하는 소중환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소중환사람들 드림

2026년 1월 소중한사람들교회 헌금

●십일조 헌금●

강덕희(30,000)	강덕희(300,000)	강원봉(400,000)	강지현(80,000)	고무원(200,000)	곽효정(100,000)
구명신(100,000)	기정아(60,000)	김연자(500,000)	김영림(100,000)	김영선(50,000)	김영진,손미나(2,000,000)
김용수,송연숙(350,000)	김현숙(500,000)	나은선(300,000)	나은선(300,000)	무명(400,000)	무명(비공개요청)
문영숙(200,000)	박민희(110,000)	박수현(200,000)	박인혜(390,000)	박해수(500,000)	박해수(500,000)
상찬영(600,000)	송기승(20,000)	신승우(800,000)	신인환(200,000)	신현정(300,000)	신형진(500,000)
신혜영(250,000)	안유진(280,000)	안현진,이영현(500,000)	안현진,이영현(1,000,000)	유광현(300,000)	유에스더(220,000)
유영재(350,000)	이교은(780,000)	이성웅,이한나(550,000)	이세린(260,000)	이영관(40,000)	이울림(250,000)
이은주(1,000,000)	이주희(630,000)	이태희(1,300)	이하람(20,000)	임나라(650,000)	장종숙(150,000)
정경희(220,000)	조미영(100,000)	한선영(200,000)	한선영(400,000)	한은순(300,000)	힘내세요(1,000,000)

●신년감사헌금●

강덕희(50,000)	기정아(30,000)	박선인(10,000)
-------------	-------------	-------------

●개인 감사헌금●

KALUZYNSKY(50,000)	감사합니다(100,000)	강대윤(10,000)	강덕희(10,000)	강덕희(10,000)	강덕희(10,000)
강덕희(10,000)	강덕희(50,000)	강성희(150,000)	강원봉(10,000)	강원봉(10,000)	강원봉(10,000)
강원봉(100,000)	강운옥(10,000)	강지현(10,000)	강지현(10,000)	곽해란(50,000)	권정연(100,000)
금식후원(10,000)	기정아(20,000)	김미미(20,000)	김Mike(352,750)	김갑희(40,000)	김갑희(50,000)
김경숙(20,000)	김남미(50,000)	김명옥(20,000)	김명옥(20,000)	김명옥(20,000)	김명옥(20,000)
김명환(50,000)	김미영(20,000)	김병식(20,000)	김상근(10,000)	김상근(10,000)	김상근(10,000)
김성희(30,000)	김순득(100,000)	김영미(30,000)	김영선(10,000)	김용수,송연숙(200,000)	김인수(40,000)
김정훈(10,000)	김종영(100,000)	김지미(20,000)	김태세(10,000)	김태세(10,000)	김태세(10,000)
김태세(10,000)	김하영(100,000)	김행삼(10,000)	김행삼12월(10,000)	김현숙(30,000)	김희정(50,000)
나미정(100,000)	나종숙(40,000)	노원균(30,000)	도문식(300,000)	무명(10,000)	무명(20,000)
무명(50,000)	무명(51,000)	무명(100,000)	무명(102,000)	민혜경(747,830)	박동준(10,000)
박선인(10,000)	박선인(10,000)	박선인(10,000)	박성은(100,000)	박세준(50,000)	박인혜(10,000)
박인혜(10,000)	박인혜(10,000)	박인혜(10,000)	박정애(30,000)	박정환(10,000)	박종철(50,000)
박지원(10,000)	박진희(50,000)	변경자(20,000)	서효숙(100,000)	성길영,최귀분(150,000)	성대용(5,000)
성대용(5,000)	성대용(5,000)	성명숙,이경민(50,000)	송계순(30,000)	송기승(20,000)	송기승(20,000)
송기승(150,000)	신영순(80,000)	신승현(100,000)	신정우(18,000)	신현정(150,000)	심요열(10,000)
심홍보(2,000)	심홍보(2,000)	심홍보(2,000)	심홍보(2,000)	오경남(20,000)	오선향(100,000)
오지석(100,000)	유애선(60,000)	유재학(130,000)	유정옥(10,000)	유지영(70,000)	윤화(10,000)
이Howard(35,275)	이SooJung(28,220)	이강혁,이강현(30,000)	이기형(10,000)	이미말(100,000)	이선아(10,000)
이선아(100,000)	이성웅,이한나(750,000)	박선인(10,000)	이성혜(5,000)	이영주(50,000)	이용섭(50,000)
이웅남(30,000)	이원옥(100,000)	이윤정(100,000)	이은영(50,000)	이은정(100,000)	이인영(30,000)
이재성(50,000)	이정선(100,000)	이주희(10,000)	이주희(10,000)	이주희(10,000)	이주희(10,000)
이지은(10,000)	이태희(10,000)	이태희(10,000)	이태희(10,000)	이현경(60,000)	이형식(40,000)
이형식(120,000)	이향희(10,000)	이향희(10,000)	이향희(10,000)	이희진(100,000)	이희진(100,000)
이희진(100,000)	이희진(100,000)	임명자(50,000)	임운업(100,000)	임운혁(10,000)	임운혁(10,000)
임정식(10,000)	임정식(26,000)	장광옥,장자민(50,000)	장란숙(100,000)	장종숙(10,000)	장종숙(10,000)
장종숙(10,000)	장종숙(10,000)	장지호(50,000)	장희순(100,000)	전혜영(10,000)	정윤(50,000)
정주연(100,000)	정선탁(10,000)	정태현(10,000)	조상애(50,000)	조을남(10,000)	조을남(10,000)
조정희(10,000)	조정희(10,000)	조진영(50,000)	주혜선(10,000)	최경숙(10,000)	최성은(10,000)
최영희(10,000)	최영희(10,000)	최영희(10,000)	최영희(10,000)	최영희(10,000)	최진복(20,000)
최진옥(100,000)	최진자(100,000)	하태윤(30,000)	한경숙(10,000)	한송희(100,000)	허동욱(10,000)
허동욱(10,000)	허동욱(10,000)	홍복실(100,000)	황부영(50,000)		

(2026년 1월 01일 ~ 1월 31일까지)

●교회 감사헌금●

(기갑)별별교회(100,000)	(기갑)선한목자교회(100,000)	(기갑)안양감리교회(200,000)	(예장)문호교회(100,000)	(예장)하나로교회(100,000)
(예장)기쁜소식교회(500,000)	기쁜우리교회(100,000)	배이직교회(1,000,000)	비전성서침례교회(30,000)	양익문교회(30,000)
온평교회(20,000)	온혜교회(50,000)	주찬양교회(50,000)	한국기독교장로회(50,000)	예수사랑교회(30,000)

●기관 감사헌금●

(*)GBP(100,000)	갯피플웨딩(50,000)	(*)계영산업(50,000)	김벗여행사(100,000)	(*)노아(1,000,000)	로그스스터디카페(20,000)
마라나타(2,000,000)	마라나타(30,000)	마라나타(100,000)	(*)엔터테인먼트(100,000)	온누리약국복지회(300,000)	(*)컨피테크(100,000)
(*)트비디자인(1,000,000)	(*)창세체스엔터(50,000)				

●미얀마교아 선교헌금●

(*)GBP(50,000)	곽상미(40,000)	김명자(100,000)	김부녀(40,000)	김재민(40,000)	김현석(40,000)
박경근(40,000)	박지영(40,000)	백천성(40,000)	안성훈(송명옥)(40,000)	유경미(40,000)	윤혜경(40,000)
이상자(40,000)	이상자(40,000)	이용우(40,000)	이혜란(40,000)	이혜란(40,000)	정영애(40,000)
정현주(40,000)	정현주(40,000)	주영훈(40,000)	최신애(40,000)	최신애(40,000)	한채리(100,000)

●중국교아 선교헌금●

윤혜경(40,000)	이혜란(40,000)	이혜란(40,000)	조준식(40,000)	한채리(100,000)
-------------	-------------	-------------	-------------	--------------

●멕시코교아 선교헌금●

김동만(40,000)	윤혜경(40,000)	이혜란(40,000)	이혜란(40,000)	한채리(100,000)	한채리(100,000)
-------------	-------------	-------------	-------------	--------------	--------------

●북한교아 선교헌금●

(*)GBP(50,000)	강일화(40,000)	강현미(40,000)	고남균(50,000)	권경희(20,000)	김명호(20,000)
김미원(40,000)	김소영(5,000)	석영만(20,000)	안미라(40,000)	유재미(40,000)	윤혜경(40,000)
윤혜란(20,000)	이복자(100,000)	이혜란(40,000)	정미주(40,000)	정미주(40,000)	한상준(10,000)
한채리(100,000)	함수아(40,000)	황주영(15,000)			

●북한선교 헌금●

김영미(10,000)	남기국(10,000)	박혜영(30,000)	신경자(100,000)	(*)엔터테인먼트(100,000)	이향자(50,000)
장승아(50,000)	전해봉(20,000)	지선옥(20,000)	한채리(100,000)		

●베트남선교 헌금●

강연구(40,000)	강연구(40,000)	김영림(30,000)	박진희(40,000)	한채리(100,000)	한채리(100,000)
-------------	-------------	-------------	-------------	--------------	--------------

●아이티교아 선교헌금●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사)온누리약국복지회박종화(40,000)
김경희(40,000)	박서준(100,000)	박선인(40,000)	박선주(80,000)
안서영(송명옥)(40,000)	윤혜경(40,000)	윤혜란(20,000)	이재혁(40,000)
이혜란(40,000)	장정문(40,000)	조경희(40,000)	조정숙(40,000)
채신애(30,000)	최준호(80,000)	최준호(80,000)	하성화(40,000)
한국외국어대학교사양종교사상의혜(50,000)	한채리(100,000)	홍정희(40,000)	

●아이티 선교헌금●

무명(300,000)	박영미(35,000)	박종래,최임선(20,000)	박재진(10,000)
서보연(10,000)	상찬영(50,000)	이정희(30,000)	조경숙(100,000)
최주리(50,000)	최준호(30,000)	한종석(200,000)	한채리(100,000)



2026년 1월 소중한사람들 정기후원금(CMS)

(*)GBP(100,000)	강금래(50,000)	강도숙(10,000)	강면구(20,000)	강영미(10,000)	강석우(50,000)	강선숙(20,000)	강순옥(10,000)
강신재(20,000)	강연정(3,000)	강은순(10,000)	강인순(50,000)	강일화(20,000)	강지수(10,000)	강지현(10,000)	강현미(20,000)
강화관(10,000)	고건화(10,000)	고명희(1,000)	고순영(10,000)	고영희(10,000)	고정숙(10,000)	공은숙(50,000)	곽상미(10,000)
구남진(20,000)	구중해(5,000)	권미희(30,000)	권민정(30,000)	권유미(10,000)	권정아(10,000)	권혁천(10,000)	김경리(10,000)
김경미(20,000)	김경민(10,000)	김경옥(30,000)	김경화(10,000)	김광천(10,000)	김귀남(30,000)	김기열(3,000)	김나영(100,000)
김대원(10,000)	김동관(30,000)	김동영(50,000)	김동영(10,000)	김란수(20,000)	김명수(150,000)	김명호(10,000)	김명옥(100,000)
김명희(10,000)	김문숙(10,000)	김마숙(10,000)	김미화(10,000)	김미화(20,000)	김민경(30,000)	김번옥(10,000)	김베드로(10,000)
김보경(10,000)	김보연(30,000)	김복자(10,000)	김부녀(30,000)	김선미(1,000)	김선아(10,000)	김선아(10,000)	김선우(10,000)
김선희(10,000)	김선희(10,000)	김성란(20,000)	김소라(10,000)	김소영(10,000)	김소연(40,000)	김소자(5,000)	김수경(20,000)
김수영(20,000)	김수정(30,000)	김숙미(10,000)	김순복(20,000)	김순하(10,000)	김슬아(10,000)	김연옥(10,000)	김영선(5,000)
김영성(5,000)	김영숙(10,000)	김영희(10,000)	김영순(10,000)	김영호(20,000)	김영인(1,000)	김영주(30,000)	김영진(10,000)
김영진(40,000)	김요래(10,000)	김옥경(20,000)	김용경(10,000)	김용기(10,000)	김원희(10,000)	김유진(10,000)	김은경(10,000)
김은주(5,000)	김은희(100,000)	김익환(5,000)	김인숙(10,000)	김인자(30,000)	김인주(50,000)	김일행(20,000)	김재경(80,000)
김종미(10,000)	김종선(2,000)	김종순(10,000)	김주남(30,000)	김주애(20,000)	김지은(20,000)	김지현(10,000)	김진아(5,000)
김창영(10,000)	김천일(20,000)	김태조(10,000)	김태훈(5,000)	김현나(5,000)	김행은(10,000)	김향은(5,000)	김현자(30,000)
김현희(10,000)	김혜린(5,000)	김혜원(20,000)	김호년(30,000)	김호숙(10,000)	김효정(20,000)	김희진(광명) (50,000)	김희숙(30,000)
김희자(10,000)	김희정(10,000)	나주열(10,000)	남혜경(20,000)	노란이(30,000)	노한준(30,000)	도문식(30,000)	류영순(5,000)
류승한(10,000)	명은자(10,000)	명주현(10,000)	무명(50,000)	무명(30,000)	문경자(5,000)	문상철(10,000)	문수민(100,000)
문은정(50,000)	문혜영(10,000)	민경희(30,000)	민수희(100,000)	박경근(30,000)	박경옥(10,000)	박경화(10,000)	박경희(10,000)
박다른(5,000)	박명자(10,000)	박명희(10,000)	박미경(10,000)	박미영(20,000)	박민선(10,000)	박민정(20,000)	박상선(10,000)
박서애(10,000)	박서운(20,000)	박성희(10,000)	박소연(20,000)	박숙희(5,000)	박순영(10,000)	박시용(15,000)	박영미(4,000)
박연주(10,000)	박영수(10,000)	박자경(10,000)	박재웅(30,000)	박정순(20,000)	박종호(10,000)	박지민(10,000)	박지상(10,000)
박지민(차은미) (10,000)	박진선(10,000)	박진철(10,000)	박창권(10,000)	박채연(50,000)	박철모(10,000)	박한숙(100,000)	박현숙(5,000)
박현주(10,000)	박효숙(20,000)	방소민(10,000)	방소윤(10,000)	백현미(10,000)	백현숙(10,000)	변상민(10,000)	변요섭(10,000)
변준섭(10,000)	사순희(10,000)	사재선(20,000)	서기준(10,000)	서혜원(20,000)	석영란(10,000)	석진혜(30,000)	성기원(40,000)
성준호(10,000)	손경순(30,000)	손미라(10,000)	손성미(2,000)	손요셉(10,000)	손진아(10,000)	손현경(10,000)	송경옥(50,000)
송경자(30,000)	송규화(50,000)	송규화(50,000)	송상선(10,000)	송연숙(50,000)	송은경(10,000)	송정우(30,000)	송정은(20,000)
신서진(30,000)	신승우(40,000)	신영주(10,000)	신은미(30,000)	신정용(30,000)	신현숙(10,000)	신현우(200,000)	심영경(30,000)
심정섭(30,000)	안강희(3,000)	안경모(30,000)	안신미(30,000)	안유진(20,000)	안훈숙(10,000)	안희정(10,000)	양성숙(10,000)
양성진(20,000)	양수정(30,000)	양재희(10,000)	양진옥(10,000)	양현아(20,000)	여인귀(30,000)	염영태(5,000)	오재원(10,000)
오진숙(5,000)	용기숙(50,000)	우홍균(10,000)	원남숙(10,000)	원상희(5,000)	원신애(50,000)	원현정(3,000)	유미선(3,000)
유선옥(10,000)	유성옥(10,000)	유수남(20,000)	유수영(10,000)	유이레(10,000)	유정모(20,000)	유정열(10,000)	유준서(5,000)
유혜원(5,000)	유화연(10,000)	윤경미(5,000)	윤두원(10,000)	윤만순(20,000)	윤상길(5,000)	윤상훈(5,000)	윤영자(50,000)

(2026년 월 01일 ~ 1월 31일까지)

윤원(10,000)	윤용식(10,000)	윤인초(10,000)	윤정희(5,000)	윤혜경(100,000)	윤혜원(10,000)	윤희숙(30,000)	윤희영(1,000)
이강섭(20,000)	이강혁(10,000)	이건호(50,000)	이경수(10,000)	이경화(30,000)	이경희(50,000)	이금아(100,000)	이광옥(2,000)
이금복(10,000)	이기문(2,000)	이길성(30,000)	이동욱(30,000)	이명숙(10,000)	이명순(10,000)	이명주(10,000)	이문정(10,000)
이방훈(50,000)	이병기(10,000)	이보미(10,000)	이복자(100,000)	이산복(20,000)	이상삼(50,000)	이상진(20,000)	이상현(20,000)
이선미(20,000)	이성순(10,000)	이성자(20,000)	이수민(10,000)	이수정(5,000)	이숙자(10,000)	이순아(10,000)	이순주(10,000)
이승연(3,000)	이매연(10,000)	이애희(10,000)	이영관(10,000)	이영미(30,000)	이영희(20,000)	이혜원(10,000)	이옥순(20,000)
이원경(10,000)	이은경(30,000)	이은숙(10,000)	이은주(50,000)	이익신(10,000)	이의화(10,000)	이인룡(20,000)	이재영(백현순) (10,000)
이재은(20,000)	이재형(10,000)	이재희(30,000)	이정원(10,000)	이정은(10,000)	이재호(10,000)	이종수(40,000)	이종수(10,000)
이종호(30,000)	이주아(20,000)	이준옥(110,000)	이지훈(50,000)	이진실(30,000)	이찬희(50,000)	이창호(50,000)	이향순(50,000)
이현주(20,000)	이현희(20,000)	이혜경(10,000)	이혜성(10,000)	이혜진(50,000)	이화영(5,000)	이희정(10,000)	임경희(10,000)
임미향(20,000)	임미희(10,000)	임상귀(10,000)	임수섭(3,000)	임신화(10,000)	임영미(2,000)	임영환(30,000)	임정화(10,000)
임춘옥(20,000)	임혜순(30,000)	장민홍(10,000)	장소영(10,000)	장순녀(20,000)	장순희(5,000)	장송아(10,000)	장영희(10,000)
장윤정(10,000)	장은별(50,000)	장인화(30,000)	장향자(10,000)	장현숙(30,000)	전경진(100,000)	전영선(10,000)	전영숙(50,000)
전재국(10,000)	전해봉(10,000)	정경아(5,000)	정광덕(50,000)	정덕규(20,000)	정두섭(10,000)	정미경(20,000)	정미선(50,000)
정미소(10,000)	정민경(10,000)	정성분(10,000)	정순남(10,000)	정애리(20,000)	정유정(20,000)	정유진(30,000)	정윤경(10,000)
정윤호(10,000)	정은희(10,000)	정의영(10,000)	정인철(50,000)	정재경(5,000)	정재미(5,000)	정진숙(10,000)	정혜자(10,000)
정해진(10,000)	정현지(20,000)	조경희(10,000)	조광남(10,000)	조광현(10,000)	조근정(10,000)	조미숙(10,000)	조새롬(10,000)
조상림(10,000)	조성원(10,000)	조수아(20,000)	조수영(10,000)	조연희(20,000)	조운정(100,000)	조은영(10,000)	조주상(20,000)
조춘호(5,000)	조현미(10,000)	조혜숙(20,000)	조혜향(10,000)	주영훈(300,000)	지선옥(12,000)	지영자(50,000)	지재문(20,000)
진미재(2,000)	진순애(1,000)	차희승(40,000)	채정임(10,000)	채지영(30,000)	천민정(10,000)	천정희(100,000)	천주리(10,000)
천희숙(20,000)	최가영(20,000)	최강의(10,000)	최경선(20,000)	최경선(10,000)	최귀분(50,000)	최금련(30,000)	최민행(10,000)
최민홍(10,000)	최상해(10,000)	최영숙(30,000)	최옥순(10,000)	최완희(100,000)	최윤구(2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임부(10,000)	최재희(100,000)	최주덕(20,000)	최하나(10,000)	최현숙(20,000)	최현종(10,000)	최혜정(100,000)	최혜정(20,000)
추윤희(20,000)	추윤희(20,000)	하천기(10,000)	한기숙(10,000)	한동기(50,000)	한미운(30,000)	한진현(10,000)	함대훈(10,000)
함지훈(10,000)	허미(10,000)	허사원(30,000)	허인애(30,000)	현정원(100,000)	홍순경(20,000)	홍영희(5,000)	홍윤희(20,000)
홍재필(20,000)	홍정희(10,000)	홍주연(20,000)	황보순(50,000)	황순분(20,000)	황은미(30,000)	황인순(10,000)	황정아(20,000)
황중문(10,000)							

소중한 사람들의 사역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사람들 교회에서 봉사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매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중림파출소 뒤, 서울의료보건고등학교 후문 앞).

소중한 사람들에 현금을 보내시려면

- 01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자동이체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소중한사람들 전화 02-365-9106, 팩스 02-365-9104 | 청평힐링센터 전화 031-582-019, 팩스 031-582-0199
- 02 웹사이트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www.ppp.or.kr
- 03 자유롭게 보내실 분은 후원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1005-404-619993 소중한사람들교회
- 04 해외에서 보내시려면
* 우리은행 1005-902-662715 은행/지점명 WOORI BANK CHUNGIM DONG BR SWIFT CODE : HVBKRXSEXXX 소중한사람들교회
* 은행송금 WOORI AMERICA BANK 419019146
- 05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해 천사회원이 되시려면 1구좌(100만원)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암환우 힐링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현금도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5-0059-6115-03 소중한사람들교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 06 소중한사람들 확장 소망 현금 계좌는 아래로 보내시면 됩니다.
농협 351-1307-8109-23 소중한사람들 교회

※ 후원금을 변경하시거나 확인하시려면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

서울 소중한사람들 (노숙인사역) T. 02-365-9106 E-mail, street9106@naver.com

청평 힐링센터 (암환우사역) T. 031-582-0191 E-mail, si224@hanmail.net

소중한사람들 후원신청서 F.02-365-9104(노숙인사역) / F.031-582-0199(암환우사역)작성 후 팩스로 보내주세요

신청인	성명	(남, 여)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소			
후원내역	후원목적 (V표해주세요)	☐ 목적지정 안함 ☐ 노숙인 사업 ☐ 노숙인 교회 ☐ 암 환우 힐링센터 ☒ 해외고아 1:1 결연(4만원) ☐ 미안마 ☐ 아이티 ☐ 멕시코 ☐ 중국 ☐ 북한		
	후원금액	원	후원구분	☐ 일시후원 ☐ 정기후원
	후원방법	☐ 자동후원(CMS) ☐ 직접 계좌이체 ☐ 현금 ☐ 기타()		
CMS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	(법인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출금일자	매월 / ☐ 6일 ☐ 16일 ☐ 26일	통장구분	☐ 개인통장 ☐ 법인통장

노숙인사역: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8길 12 TEL 02-365-9106 FAX 02-365-9104 www.ppp.or.kr

암환우사역: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TEL 031-582-0191 FAX 031-582-0199 www.pphealing.com